

레저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4일 개막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근간인 안동 하회마을이 올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지금 안동에서 탈춤페스티벌이 어느 해 보다 성대하고 특별하게 준비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흘간 하회마을과 안동시내 강변 탈춤공원에서 다채롭게 열리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우리의 탈문화와 전통의 우수성을 새롭게 보여 주고 지구촌 세계인들의 눈길을 모으기 위해 지금 개막 준비에 부심한다.

탈쓰고 흔들흔들
신명이 절로



낙동강 상류 안동시내 강변에 마련된 탈춤공원은 매년 축제기간 열흘 동안 100만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와 성황을 이룬다.



하회탈춤의 비보역인 이매탈이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익살을 부리며 관객들을 한바탕 웃겨주고 있다.

◇'탈랄라' 댄스 그 신명의 군무 속으로 가자=올해는 탈춤꾼뿐만 아니라 관광객 등 참가자들까지도 탈을 쓰지 않고 못 배기도록 축제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올해 주제를 '신명의 탈춤, 천년의 꿈'으로 정하고 축제장을 찾은 모든 이들이 꿈 꿀 수 있는 축제, 일상에서의 일탈을 경험할 수 있는 축제로 이끌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먼저 하회별신굿탈놀이를 테마로 한 탈랄라 댄스를 개발했다. 하회별신굿탈놀이는 양반과 선비 등 지배층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민중의 놀이로 약 8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전통의 원형만으로는 지구촌 세계인들의 흥을 돋우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보다 대중화와 세계화로 방향을 바꿨다.

올해 축제장에서는 이 하회탈춤 춤사위를 활용해 개발한 탈랄라 댄스로 퍼레이드를 펼치고 군무를 통해 관광객의 참여를 높이는 축제 운영을 구상중이다. 탈랄라 댄스는 어깨춤을 시작으로 주춤, 중춤, 이매춤, 할미춤, 초랭이춤의 여섯 가지 춤사위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인 춤사위가 재미있고 쉬워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여러 사람이 함께 추는 군무의 즐거움을 통해 신명 넘치는 축제장으로 이끌어 낼 것이다.

권두현 축제조직위원회 사무처장은 "양복을 입고 축제에 참여할 수는 없는 법"이라며 "탈을 쓰고 흔들흔들 춤을 추다 보면 어느새 신명이 솟아나고 그 누구든 축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유럽 등 세계 곳곳 탈춤 선배=이번 페스티벌의 모체는 국내·외 탈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새롭게 짰다는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 유럽 탈춤을 두루 관람할 수 있도록 공연장 별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올 축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맞춰 인도네시아와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멕시코, 몽골, 프랑스 등 7개 외국 탈춤팀들이 함께 어우러져 이국적인 공연을 펼치게 된다. 7개의 외국 공연을 버라이어티하게 즐길 수 있는 합동공연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안동지역의 설화와 이야기를 테마로 한 마당극 두 편과 인형극 여덟 편 등이 공연된다.

올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www.maskdance.com)은 안동문화예술 전당의 화려한 공연과도 함께 진행된다. 먼

저 난타를 통해 세계인의 이목을 주목시켰던 PMC프로덕션의 송승환 대표가 기획한 퍼포먼스 '탈'이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일주일 동안 막 오른다.

세계 600여점의 탈을 전시한 세계탈전시회와 오랜 시간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촬영해 하회탈의 새로운 미학이 펼쳐질 사진작가 전경애씨의 사진전 등이 준비돼 있다.

총 상금 5300만원이 걸려있는 세계탈놀이경연대회와 나를 꼭 닮은 나만의 탈 만들기인 창작탈공모전, 전국탈춤그리기대회와 아동문화가 권정생 선생의 주옥같은 동화가 인형극으로 재탄생돼 어린이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탈춤 따라 배우기, 공으로 펼치는 석전 등이 준비돼 있다.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 홍보에 주력=또 탈과 탈문화 집적을 통해 안동을 세계탈의 메카로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탈문화예술연맹(회장 유종하 IMACO, International Mask Arts and Culture Organization)이 진행하게 될 국제컨퍼런스와 세계탈전시회도 불만만 부대행사다.

축제 기간 중 학술대회와 탈 관련 전시, 탈 관련 컨텐츠 조사 연구 등을 쟁겨 볼 수 있다.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 저력을 밑바탕으로 올해도 40여 개국의 탈을 안동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하며 세계 탈춤 전문가를 초청해 탈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학술대회도 마련하고 있다.

보수적인 유교문화도시로 인식되어 온 안동이지만 찬찬히 속을 들여다보면 놀랍고도 감동적인 문화,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승되어 오는 고장이다. 독한 '안동소주 45도'가 빛어지고 있고 유교의 대가 퇴계선생이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도산서원을 설립한 곳이기도 하다.

이번 아니라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했다. 나라를 되찾고자 독립운동에 나선 석주 이상룡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배출한 도시가 바로 안동이다.

김춘택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장은 "전통 안동의 탄탄한 문화적 토대 위에 열리는 국제탈춤페스티벌은 한국을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면서 "다양한 변화와 신명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각국의 관객을 맞이할 준비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매일신문=권동순기자 pinoky@msnet.co.kr

관광객 참여 춤 개발 '함께하는 축제'

중국·프랑스 등 7개국 탈춤팀 참여



외국인들이 나만의 탈춤 만들기 체험 부스에서 정성껏 탈을 만들면서 즐거워하고 있다.



태국 전통 탈춤 등 대륙별 외국 탈춤공연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유일하다.

상상 이상의 현실—

보문OK

준비된 자사고 보문고

특성화 프로그램

- 창조적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인재 교육 프로그램 '2010 대한민국 좋은 학교' 비람회 참가 (교육과학기술부, KBS주관)
- 나눔 체험 활동을 통한 바른 인성 함양 프로그램
-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한 학업 성취도 향상 프로그램
- 독서 교육 강화 프로그램 (2008 도서관운영평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감성과 열정이 있는 문화 시민 교육 강화 프로그램
- 미래를 준비하는 신입생 예비 학교 운영
- 해외 교류 프로그램 (2009 영어교육리더학교 선정-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 끼와 문화를 발산시키는 교육
- 맞춤형 진학지도 : 1교사 1대학 전문가, 성적향상 프로그램
- 논술 및 심층 면접 교육

미래로의 새로운 도전! 세계로 비상하는 보문인!

입/시/설/명/회

- 일시 : 9월 12일(일요일) 오후 3시
- 장소 : KBS공개홀(상무지구)
- 주제 : 특목고(자사고) 입시전략
 - 고입전문가 : 임성호(주)하늘교육 기획이사
 - 대입전문가 : 이석록-메가스터디 평가소장

http://bomun.hs.kr

학교법인 보문학숙

506-11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대로 529번길 371(우수동 308) 보문고등학교
TEL. 940-8800, 940-8840, 940-8803 FAX. 940-8899